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부 15학번 최지수입니다. 저는 LG디스플레이 Mobile 사업부의 공정/장비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종합공정이라는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상 취업 후기를 쓴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정답 없는 취업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경험과 다른 취업 후기들을 참고하셔서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어떤 산업에 관심 있나?’입니다. 산업과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취업에 성공하는 지름길 중 하나이며,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기까지의 자세한 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스펙
2. 취업 준비
3. 하고 싶은 말

1. 스펙

1) 학점 - 3점대 중후반으로도 충분하다. / 수강 과목들로 산업의 관심도를 표현할 수 있다.

제 졸업학점은 3.79(전공 3.91)로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학점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점은 전공 지식과 성실도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기본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동기들을 보면 대부분 3.5-4.0 정도였습니다.)

즉, 모든 과목에 A+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무작정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어떤 산업 및 직무에 관심이 있고, 그곳에 취업하기 위해 어떤 과목이 필요할까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산업, 직무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2-3학년동안 다양한 산업(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등) 관련 수업을 경험하시고, 적어도 4학년 땐 해당 산업에 대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수강하여 자신의 관심도를 어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계 프로젝트가 있는 과목이면 더더욱 어필하기 좋습니다.)

2) 어학 - 외국계기업이 아닌 이상 무리한 어학성적은 필요치 않다.

저는 토익 810, TOEIC Speaking Lv.7의 어학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공대생에게 영어 실력을 크게 요구하진 않지만, 회사와 직무에 따라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중견, 대기업, 외국계 기업 이렇게 넓은 범위에 회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영어 성적이 높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토익 800점 이상, 토스 Lv.7 이상 등'을 목표로 하면서 불필요하게 어학성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처럼 토익은 취득하실 필요도 없고, 토스는 최대 한 달까지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4학년 당시, 교내 외국어교육원 토스 환급반 교육을 신청해 공강 시간을 활용하며 어학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도 충분하니, 학교 내에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 자격증 - 직무 관련 자격증이면 OK, 하지만 과한 시간 투자는 금물

저는 품질경영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6-sigma GB가 있었습니다. 6시그마 GB는 학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하였고, 나머지는 휴학 기간에 취득했습니다.

공기업이 아닌 이상 사기업에선 자격증이 필수가 아닙니다. 주위에 자격증 취득만을 목표로 1년씩 휴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휴학 기간의 전부를 자격증에 쏟을 만큼 취업에 대단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자격증 없이 취업한 동기들도 많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 자격증이 아닌 이상 무의미하므로 지원직무에서 해당 자격증이 과연 필요할까에 대해 고민하시고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2. 취업 준비

1) 자기소개서 - 필살기 경험을 미리미리 정리하자 / 자소서는 면접 대비용이다.

아마 공대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자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공계 명저 글쓰기 수업도 듣기 힘들었는데 몇천 자 이상의 글을 쓰라고 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자소서를 준비하는 첫 번째는 '경험 정리'입니다. 먼저 해당 산업, 직무에서 어필할 수 있는 자신만의 크고 작은 경험을 선별해야 합니다. 그다음, 어떤 방향으로 어필할지 대략적인 스토리를 짜는 게 좋습니다. (협업, 리더십, 직무 관련 등등 키워드에 따른 대표 경험 정리) 이 단계는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울림의 취업 상담 선생님과 함께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차근차근 경험을 다듬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SK, 삼성 자소서를 써보며 '둘러막기 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류합격률을 높이려면 많이 내야 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자소서를 쓰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키워드별로 자소서 소스를 만들어놓으면 다른 기업 서류를 쓸 때 활용할 수 있고, 면접에서도 일목요연하게 경험을 풀어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이 면접에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합격만을 목표로 무작정 썼다가 면접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면접에서 설명할 자신이 없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자격증의 경우, 무조건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관련 질문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2) 인적성 -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빨리 푸는 방법을 찾자 / 강하고 약한 유형을 파악하자

인적성 실력은 정말 사람 차이입니다. 기본기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해커스나 위포트 같은 기본서들로 미리미리 문제 유형을 익혀두고, 서류합격 후에 해당 기업의 인·적성 책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적성 스테디를 따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교내 어울림에 대기업 인·적성 수업을 늘 신청해서 들었고, 그 외에 유튜브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성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부분에 약하고 강한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푸는 데에 집중하고 약한 부분은 과감하게 넘길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3) 면접 - 지피지기 백전백승 / 면접 스테디를 활용하자/ 면접 기회를 놓치지 말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관의 의도 파악'입니다. 즉, 면접관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됩니다. 저는 교내 멘토링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내 취업처에서 선배 현직자분들을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해당 직무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현업에서 쓰이는 프로그램이나 용어들이 궁금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자기 경험을 매칭할 수 있다면 더욱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면접 스터디 활용’입니다. 공대생 중에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몇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접 준비라는 게 당장 앞두지 않으면 뒷전이 되고, 막상 닥치면 막막하고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졸업 후에 면접 스터디에 들어가서 답변을 다듬어갔고, 면접의 기본적인 자세들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터디는 너무 일찍부터 할 필요는 없고 4학년 하반기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 학교 수업에서 발표 경험을 많이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면접에 많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전이 아무래도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작은 회사라도 면접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가서 면접 준비과정, 면접장 분위기를 경험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3. 하고 싶은 말

앞서 거듭 강조했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직무, 산업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우선순위라도 고민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공정 기술 관련 직무로 여러 산업군에 지원했지만, 서류합격을 할지라도 이후 면접에서 바닥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과 직무는 미리 고민하고 결정해서 관련 외부강의나 현장 견학이라도 틈틈이 경험해보는 게 면접관에게 많은 어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다시 오지 않을 대학 시절을 유의미하게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난이 더욱 심해져서 취업 고민을 일찍 하게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정말 대학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대학 시절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셔도 충분히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동안 학과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과 밖,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생회, 학부연구생, 인턴, 서포터즈, 공모전, 어학연수 등 특별한 성과가 없더라도 혼자서라도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 속에서의 작은 것들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사하시면 정말 재미없는 일상의 연속이니 부디 많은 추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LG디스플레이에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4749-7863으로 연락해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들 취업 성공 기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